

2016년 8월 8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8월 전략 - TINA Trade

• 계량분석

PBR-ROE 경로분석: 조선업 변곡점 돌파
페어트레이딩(8월2주차)

• 중화권 증시 동향

관망세에 본토 증시 변동성 축소, 홍콩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싸이맥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코렌텍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리츠, 인터넷, 파라다이스, 한국전력, 한화테크윈, BGF리테일,
CJ CGV, CJ대한통운, CJ오쇼핑, KCC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9.61	2,019.03	1,994.79	2,000.03	2,017.94	
	등락폭	13.42	-10.58	-24.24	5.24	17.91	
	등락종목	상승(상한)	381(1)	348(0)	253(1)	464(0)	404(1)
		하락(하한)	425(0)	468(1)	556(0)	320(0)	408(0)
	ADR	93.49	92.67	94.79	91.78	95.59	
	이격도	10 일	100.54	100.01	98.91	99.23	100.08
		20 일	101.23	100.63	99.32	99.51	100.27
	투자심리	3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70	410	486	327	287	
	거래대금 (십억 원)	4,822	4,314	4,387	3,648	4,121	
코스닥	코스닥지수	703.72	700.9	698.32	701.67	696.09	
	등락폭	-2.52	-2.82	-2.58	3.35	-5.58	
	등락종목	상승(상한)	500(1)	451(0)	392(2)	625(2)	425(2)
		하락(하한)	579(0)	633(1)	687(1)	456(0)	652(0)
	ADR	102.54	102.11	101.71	102.13	101.21	
	이격도	10 일	99.84	99.46	99.19	99.76	99.13
		20 일	100.40	99.94	99.48	99.91	99.09
	투자심리	6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94	726	738	688	634	
	거래대금 (십억 원)	3,744	4,146	3,681	4,145	4,05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24.2	1,197.3	946.5	186.5	178.3	206.5	99.0	8.6	267.7	55.5
	매도	2,125.0	945.7	1,022.2	241.5	209.1	241.6	80.3	11.1	238.6	30.7
	순매수	-200.8	251.7	-75.7	-55.0	-30.8	-35.1	18.7	-2.6	29.1	24.8
	8월 누계	101.5	562.6	-858.4	-404.1	-48.6	-245.4	-125.7	-12.2	-22.3	194.3
	16년 누계	-4,344.0	8,183.3	-5,399.2	-1,450.9	1,321.6	-3,539.4	-1,130.6	-791.9	192.3	1,559.8
코스닥	매수	1,924.2	1,197.3	946.5	186.5	178.3	206.5	99.0	8.6	267.7	55.5
	매도	2,125.0	945.7	1,022.2	241.5	209.1	241.6	80.3	11.1	238.6	30.7
	순매수	-200.8	251.7	-75.7	-55.0	-30.8	-35.1	18.7	-2.6	29.1	24.8
	8월 누계	101.5	562.6	-858.4	-404.1	-48.6	-245.4	-125.7	-12.2	-22.3	194.3
	16년 누계	-4,344.0	8,183.3	-5,399.2	-1,450.9	1,321.6	-3,539.4	-1,130.6	-791.9	192.3	1,559.8

8월 전략 : TINA Trade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31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5%P

- ▶ 투자전략 : 중간재, 제조업, 대형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 TINA Trade : 신흥국과 한국 시장에는 기회 요인
- ▶ 8월 아이디어 바스켓: 삼성전자, POSCO, 두산인프라코어

■ TINA Trade: 제조업, 중간재, 대형 가치주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인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지난 주 영란은행도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확대에 금융시장의 기대에 적극 화답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풍지대라 여겨졌던 채권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면서 일본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고, 유럽에서는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와 퇴직연금 결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월 시장이 통화정책 공백으로 잠시 쉬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TINA(There is no Alternative) 트레이드, 즉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이라면 뭐든 좋다는 일종의 절박함으로 귀결된다. 신흥국과 한국시장에는 기회요인이다. 신흥국 경기는 자본유출 우려 완화, 조달금리 하락, 상품가격 반등, 투자확대 등으로 바닥을 확인했고 한국시장은 IT, 소재, 산업재 등 사이클 산업의 상대강도가 회복되고 있다.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소형 성장주보다는 대형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 조정폭은 3% 미만으로 5~6월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점진적 우상향 전망은 여전히다. 8월 KOSPI 예상 밴드는 1,950~2,050p로 유니버스 추정이익 기준 12MF PER 10.0~10.5배, 12MF PBR 0.92~0.96배에 해당한다.

■ 8월 아이디어 바스켓: 삼성전자, POSCO, 두산인프라코어

최근 일드갭 확대에 주식 투자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8월 증시가 조정을 겪더라도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견지한다. 특히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업종은 IT, 소재, 산업재다. 8월 아이디어 바스켓에는 이들 중에서 이익모멘텀이 유지되는 종목들은 선정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NAVER, POSCO,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LG전자, 한국항공우주, 현대산업, 두산인프라코어, 풍산 등이다.

STRATEGIC INSIGHT

<표> 8월 아이디어 바스켓 종목 10선

(단위: 십억원, 원, %, 배)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8/4)	수정주가 (8/4)	지배주주 순이익 (2Q16)	2Q 순이익 증가율 (YoY)	지배주주 순이익 (3Q16E)	3Q 순이익 증가율 (YoY)	12MF EPS 변화율 (MoM)	12개월 선형 PER (8/4)	12개월 선형 PBR (8/4)
A005930	삼성전자	214,912	1,517,000	5,826	3.5	6,050	14.0	7.9	10.3	1.1
A035420	NAVER	23,305	707,000	213	70.8	190	61.9	9.2	25.2	5.9
A005490	POSCO	19,007	218,000	292	47.2	446	흑전	3.7	10.9	0.4
A034220	LG 디스플레이	11,039	30,850	-72	적전	200	5.5	67.9	15.1	0.9
A009540	현대중공업	9,614	126,500	292	흑전	188	흑전	13.9	11.5	0.5
A066570	LG 전자	8,592	52,500	271	44.8	194	131.6	6.7	9.7	0.7
A047810	한국항공우주	7,681	78,800	68	20.1	68	89.0	7.2	24.4	4.8
A012630	현대산업	3,268	43,350	113	123.8	88	17.2	18.7	8.6	1.1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1,564	7,540	197	2,911.3	38	흑전	19.8	7.2	0.7
A103140	풍산	908	32,400	41	17.8	30	203.5	18.9	7.2	0.7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이 자료는 2016년 8월 8일자로 발간된 <Strategic Insight : 8월 전략 - TINA Trade>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PBR-ROE 경로분석: 조선업 변곡점 돌파

- ▶ 본격적인 PBR 확장 국면에 진입한 조선업
- ▶ 조선업 투자매력: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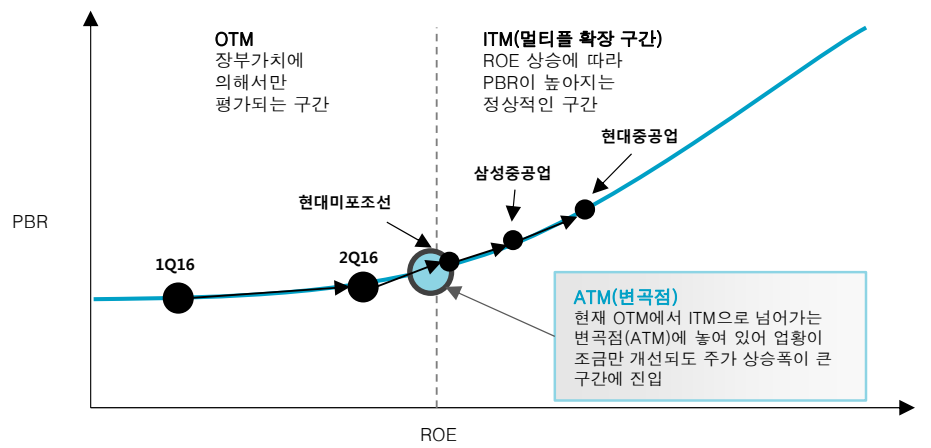
■ 본격적인 PBR 확장 국면에 진입한 조선업

조선 업종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은 24.0% 상승했고, 삼성중공업은 4.1%, 현대미포조선은 15.8% 올랐다. 이러한 조선업의 강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시적인 상승인가, 추세전환 신호인가?

우리는 지난 4월¹과 7월² PBR-ROE 경로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선 업종의 PBR 멀티플 확장시점이 임박했다는 의견을 내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조선업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했다. 그 근거로 1) 각 종목마다 PBR과 ROE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ROE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 2) 오랫동안 ROE가 낮았던 주요종목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ROE 변곡점에 접근했다는 점을 제시했다[그림 1].

최근 조선업 주가 강세가 실적 개선 가시화에 기반한 만큼, 우리는 조선 업종의 ROE가 변곡점을 넘어 본격적인 PBR 멀티플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실적개선이 현재 속도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조선 업종의 주가 상승속도는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보다 기준에 제시한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

[그림 1] 조선업 PBR-ROE 경로 변화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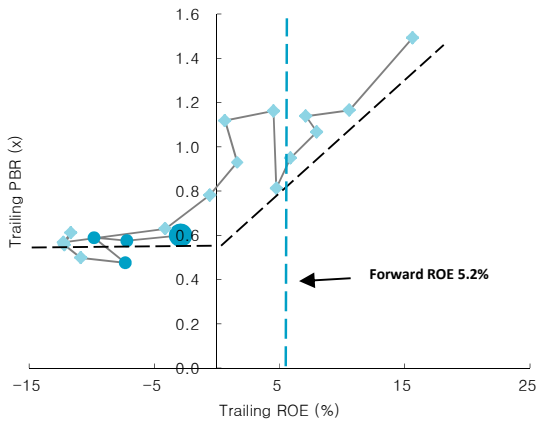
¹ 한국투자증권, <경로패턴 업데이트 - 시클리컬의 분기점>, 안혁, 2016.4.15

² 한국투자증권, <경로패턴 업데이트 - 분기점을 넘어서는 시클리컬 업종>, 안혁, 2016.7.19

■ 투자매력: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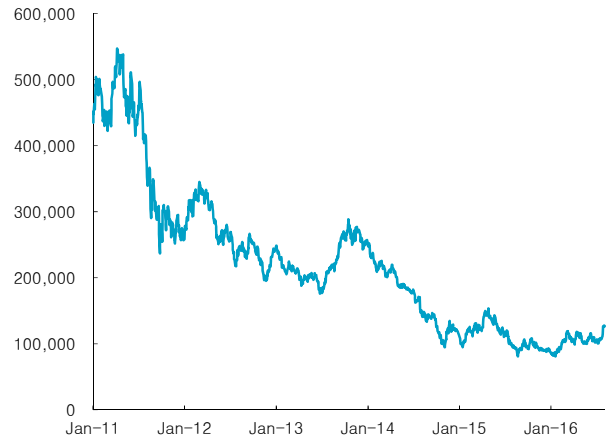
조선 업종의 주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투자매력이 가장 높다. 우리 모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ROE 변곡점은 0%로, 흑자 전환만 확인되면 멀티플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trailing ROE는 -2.9%이지만, forward ROE는 5.2%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5.2%의 forward ROE가 현실화되면 PBR이 1.0배인 21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림 2] 현대중공업 PBR-ROE 경로(분기)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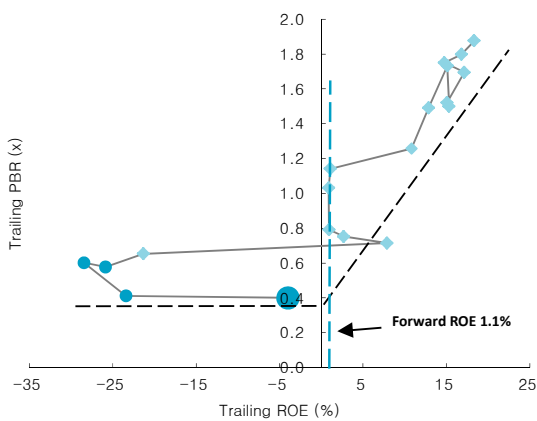
[그림 3] 현대중공업 주가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매력적인 종목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0%의 ROE 변곡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다. 이 종목의 forward ROE는 1.1%로 멀티플 확장 ROE보다 높지만, ROE 개선 폭이 작아 현대중공업 보다 투자매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1.1%의 forward ROE가 현실화될 경우 PBR 0.7배인 16,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림 4] 삼성중공업 PBR-ROE 경로(분기)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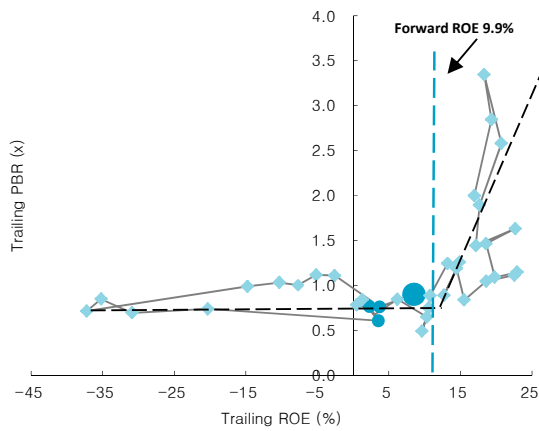
[그림 5] 삼성중공업 주가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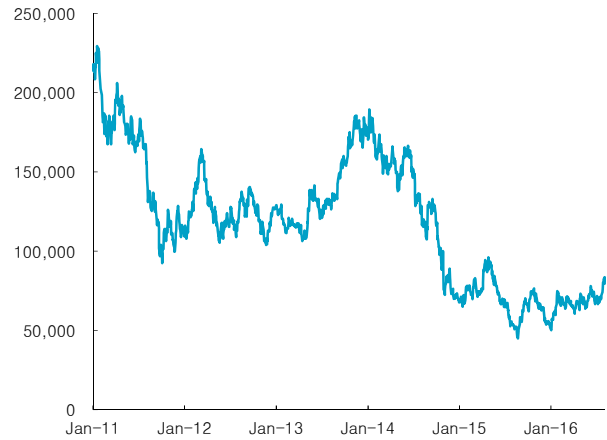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0%의 ROE 변곡점을 갖고 있는 현대미포조선도 투자매력이 높다. 비록 현재 9.9%로 추정되는 forward ROE가 변곡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의 순이익 컨센서스가 상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ROE 10% 돌파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현대미포조선 PBR-ROE 경로(분기)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현대미포조선 주가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PBR-ROE 경로분석 모델

-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종목 선정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둔 퀀트 모델을 통해 도출되므로, 한국투자증권의 공식적인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PBR-ROE 경로분석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5년 10월 6일자로 발간된 <경로분석(1): PBR-ROE 경로패턴>을 참조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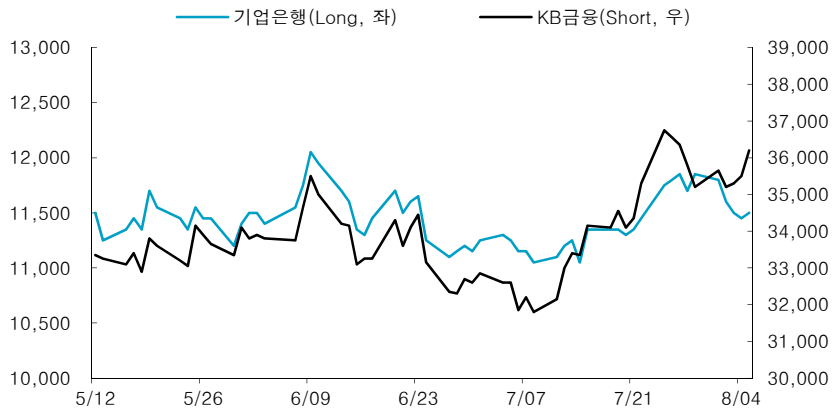
페어트레이딩(8월2주차)

- ▶ 기업은행(L)-KB금융(S)
- ▶ 삼성SDI우(L)-삼성SDI(S)
- ▶ 삼성전기우(L)-삼성전기(S)
- ▶ S-Oil(L)-SK이노베이션(S)

페어1: 기업은행(L)-KB금융(S)

지난 7월 25일에 제시한 기업은행-KB금융 페어를 첫번째 페어트레이딩 전략으로 유지한다. 8월 2일 이후 기업은행의 주가가 0.9% 하락한 반면 현대증권 자회사화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과 함께 KB금융은 2.8%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두 종목 주가의 수렴 가능성을 높게 보며, 이때 기대수익률은 5.6%다.

[그림 1] 주가 추이 (기업은행-KB금융)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1> 페어1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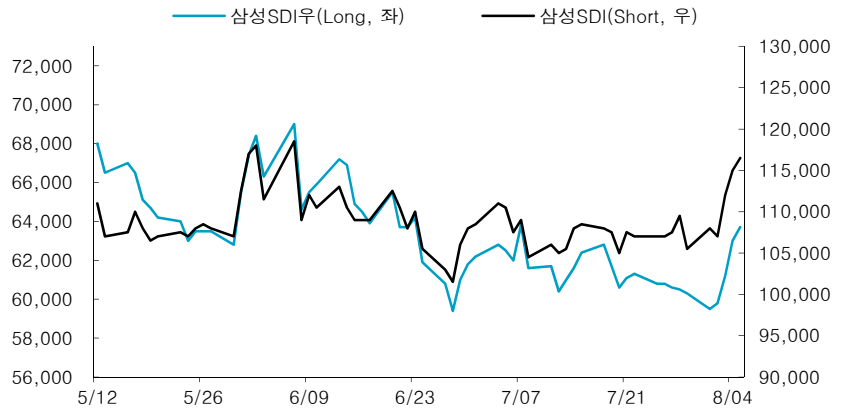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24110	기업은행	6,440	7.1	6.3	0.5	0.4	7.0	6.8	10.7	3.6	코코본드 발행 검토 중
Short	A105560	KB 금융	13,986	7.5	7.2	0.5	0.4	6.1	6.6	21.3	14.3	현대증권 자회사화 결정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페어2: 삼성SDI우(L)-삼성SDI(S)

두번째는 삼성SDI 우선주를 long, 보통주를 short하는 페어트레이딩 전략이다. 삼성SDI우선주는 7월 7일 이후 0.2% 하락한 반면, 보통주는 6.9% 상승하며 다소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는 단기간 벌어진 두 종목 주가의 수렴을 예상하며, 7.1%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그림 2] 주가 추이 (삼성SDI우-삼성SDI)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페어2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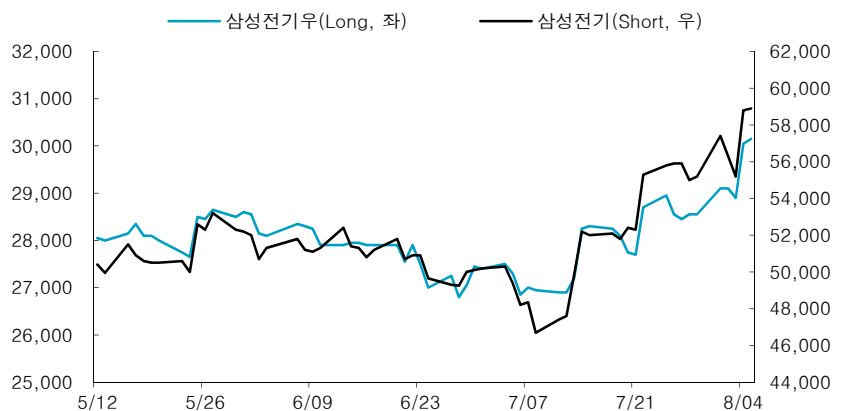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06405	삼성 SDI 우	103	149.0	21.8	0.7	0.7	0.5	3.4	흑전	596.7	-
Short	A006400	삼성 SDI	8,011	149.0	21.9	0.7	0.7	0.5	3.4	흑전	596.7	-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페어3: 삼성전기우(L)-삼성전기(S)

세번째 페어트레이딩 전략으로 8월 3일 이후 주가가 4.3% 상승한 삼성전기 우선주를 long, 6.7% 상승한 보통주를 short하는 페어를 제시한다. 두 종목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좀더 큰 폭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단기간 벌어진 두 종목의 주가는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수렴 시 기대수익률은 6.4%다.

[그림 3] 주가 추이 (삼성전기우-삼성전기)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3〉 페어3 종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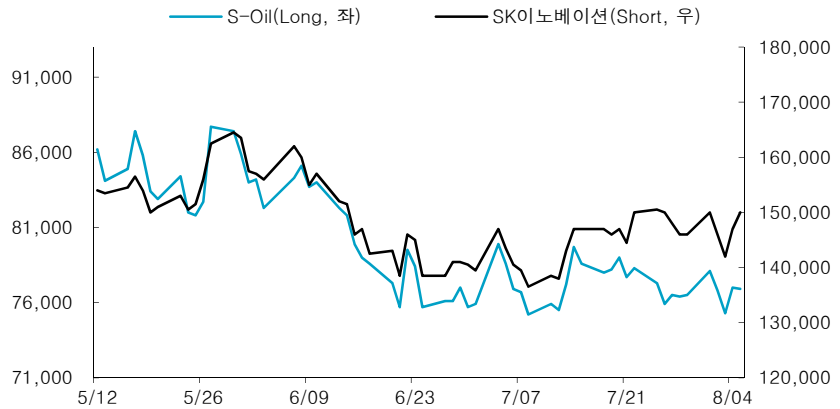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09155	삼성전기우	88	436.3	39.9	1.1	1.0	0.3	2.7	-97.8	925.4	-
Short	A009150	삼성전기	4,399	436.3	39.8	1.1	1.0	0.3	2.7	-97.8	925.4	-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페어4: S-Oil(L)-SK이노베이션(S)

마지막은 S-Oil을 long, SK이노베이션을 short하는 동종업종 페어트레이딩 전략이다. 지난 7월 15일 이후 S-Oil의 주가가 2.2% 하락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2.0% 상승하며 대비를 이뤘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벌어진 두 종목의 주가는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수렴이 현실화되면 4.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 주가 추이 (S-Oil-SK이노베이션)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4〉 페어4 종목 요약

매매방향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원)	PER(x)		PBR(x)		ROE(%)		EPS 증가율(%)		주요 이슈
				15A	16F	15A	16F	15A	16F	15A	16F	
Long	A010950	S-Oil	8,658	14.7	6.6	1.7	1.4	12.3	23.1	흑전	116.8	신규 투자자금 조달할 3000억 사채발행 검토
Short	A096770	SK이노베이션	13,870	15.0	7.0	0.8	0.8	5.3	12.1	흑전	147.2	-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페어트레이딩 모델

-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페어트레이딩 전략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둔 퀀트 모델을 통해 도출되므로, 한국투자증권의 공식적인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이 퀀트 모델은 통계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페어를 제시, 하지만 두 종목의 최근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이 자료에서 제시한 페어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음
- 본 자료에서 제시된 페어 중에는 short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비용이 수반돼 실제 거래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덱스 펀드의 경우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통신회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관망세에 본토 증시 변동성 축소, 홍콩 강세

- ▶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하반기 부동산 규제 강화, 개혁 추진속도 저하 등의 분석에 약세
- ▶ 홍콩H지수 1.4% 상승, 영란은행의 통화완화 정책과 국제 유가의 강세 지속이 호재로 작용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공항, 항공, 통신, 신택, 의료장비 등의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0.2% 하락한 2,977p를 기록했다. 또한 정부의 감독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확대됐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간 단위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하락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해나갔다. 거래대금은 1,618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조금 늘었다. 특별한 정책 호·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했다. 또한 하반기 부동산 규제 강화, 개혁 추진속도 저하 등 분석들이 제기되며 일부 경계심리도 부각됐다.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테마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부동산주는 부동산 최대 업체인万科의 주가 급등으로 강세를 보였고 상업은행, 농약, 은행, 증권, 교통설비, 귀금속 등 업종들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공항, 항공, 통신, 신택, 의료장비, S/W 등 업체들은 하락 마감했고 차스닥지수도 동반 1.0% 하락한 2,109p를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8억위안을 순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4% 상승, 소재, 소비재, 금융, 통신서비스 등 모든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1.4% 상승한 9,132p로 마감했고 주간단위로는 1.9% 상승하며 본토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상승 출발한 증시는 점차 상승폭이 확대됐다. 직전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국제 매입 규모 확대 등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최대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국제 원유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한편 미국의 고용지표와 다음주 본토 경기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 마감에 관망세가 우위를 차지했다. 소재, 소비재, 금융, 통신서비스 등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8/5(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976.70	-0.19	-0.09	-0.99	-15.89
심천종합	1,941.61	-0.37	0.00	-3.23	-15.91
차스닥	2,109.06	-0.97	-0.63	-6.10	-22.29
홍콩H	9,131.52	1.41	0.54	5.65	-5.48
Shibor 7일물 금리(% , %p)	2.32	-0.30	-1.32	-1.15	-1.61
Shibor 1개월 금리(% , %p)	2.73	-0.37	-1.59	-4.58	-9.09
중국국채 3년물(% , %p)	2.41	-0.79	-1.65	-4.84	-5.97
위안/달러 고시환율	6.6406	-0.06	-0.16	-0.28	2.26
역내 위안/달러	6.6440	-0.03	-0.14	0.63	-2.26
역외 위안/달러	6.6529	-0.10	-0.33	0.54	-1.27

주: 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시장별 외국인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 마감

- 미국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영향을 줄 7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로 1% 가까운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 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로 약세를 보이며 700P선 아래로 밀려남.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 우려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며 시장 하락을 주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한화테크윈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금호산업이 20% 이상 초강세를 보임. 삼성전자의 자동차 부품사업 확대 기대감에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제조업체인 에이테크솔루션이 이를 연속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내년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테라세미콘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또한,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선박 인도량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에 두산엔진이 10% 가까이 급등하는 등 그룹 계열사 실적 개선 기대감에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임. 반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이 고조되며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 엔터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으며, 인건비와 물류비 등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분석에 CJ프레시웨이와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화테크윈(012450) ▶61,500(+3.89%)	2분기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1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방산부문의 선전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금호산업(002990) ▶10,800(+14.29%)	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초강세 -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초강세 - 이는 주택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원가율이 좋지 않은 공사들이 완공된 것과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발생에 기인
두산그룹주	2분기 실적 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강세 - 2분기 두산그룹 4곳 계열사의 총 영업이익은 4,4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5%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 - 두산엔진(082740, +10.21%), 두산인프라코어(042670, +6.10%), 두산중공업(034020, +6.09%), 두산(000150, +5.61%) 등 강세
엔터/화장품 관련주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련 사업 우려에 하락 -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국내 화장품주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 일제히 급락세 - 잇츠스킨(226320, -8.10%), 코스백스비티아이(044820, -6.49%), 아모레G(002790, -5.70%), 에프엔씨엔터(173940, -7.56%), 판타지오(032800, -7.32%), NEW(160550, -7.0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기업실적과 경제지표 등이 엇갈리며 한주 내 혼조양상을 보인 가운데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주중 40달러선 밑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임. 한편, 브렉시트 결정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인 BOE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함.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 후반 유럽증시가 상승세를 보임
- 국내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주 초반 2,03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속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로 주중 2,000P선을 하회하는 등 약세를 보임. 그러나 주 후반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며 2,017P로 한주를 마감. 반면, 코스닥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로 엔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 696P로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피	IT	반도체장비	신성이엔지	4,165	13.6	산업재	조선	현대중공업	133,500	6.3
	IT	반도체장비	유니퀘스트	4,700	14.0	산업재	항공우주	한화테크윈	61,500	13.2
	소재	비철금속	풍산	32,850	5.8	산업재	철강금속	화인베스틸	3,400	6.5
	소재	화학	울촌화학	14,600	4.6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한라홀딩스	69,000	9.3
	소재	화학	카프로	5,100	22.2	경기소비재	섬유의류	진도	7,730	3.1
	산업재	기계	두산중공업	27,000	3.3					
코스닥	IT	핸드셋	코렌	9,290	43.7	IT	디스플레이	넥스트아이	17,600	12.0
	IT	IT부품	신화콘텍	7,100	20.1	IT	디스플레이	케이맥	16,350	8.6
	IT	전자제품	파인디지털	6,950	22.4	소재	화학	원익머트리얼즈	74,600	6.5
	IT	전자제품	토파일드	5,980	9.8	소재	철강	동국산업	6,170	0.9
	IT	전자제품	삼본정밀전자	14,150	38.3	산업재	기계	동국S&C	8,560	9.6
	IT	전자기기	옵트론텍	8,160	5.7	산업재	기계	넥스텐	23,950	41.5
	IT	반도체장비	이디	4,245	16.4	산업재	기계	태웅	22,700	6.9
	IT	반도체장비	프로텍	11,550	4.7	산업재	기계장비	에이테크솔루션	8,950	56.8
	IT	반도체장비	유진테크	20,500	7.2	건강관리	의료기기	뷰웍스	55,500	11.1
	IT	반도체장비	세코닉스	19,650	6.7	필수소비재	가정용품	태양	12,250	7.4
	IT	반도체장비	이녹스	19,650	5.5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케이엔더블유	9,390	16.5
	IT	디스플레이	동아엘텍	24,900	5.0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넥센테크	7,070	11.0
	IT	디스플레이	탐엔지니어링	7,620	22.3	경기소비재	전자제품	오텍	8,040	9.4
	IT	디스플레이	AP시스템	22,000	15.7	경기소비재	유통	로체시스템즈	11,850	27.6
	IT	디스플레이	아이씨디	16,600	4.2					

주) 상기 종목들은 8월 05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싸이맥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싸이맥스 (160980)	14,900 (+5.3)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
베셀 (177350)	12,000 (+18.2)	10,150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
BGF리테일 (027410)	201,500 (-4.0)	210,000 (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점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형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 마진율이 높은 백종원 도시락 등 신선식품의 판매 호조와 PB상품 브랜드인 '헤이루(HEYROO)', 원두커피 사업 등의 상품력 강화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 - 음료, 빙과 등의 매출 증가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부각될 전망
GKL (114090)	25,500 (-7.6)	27,600 (0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를 기점으로 드롭액의 회복세가 예상되며 메르스 기저 효과와 홀드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 예상 배당수익률 3.5% 수준으로 배당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Silver고객(카지노에서 소비가 큰 일반 고객) 대상 영업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 mix개선 예상
한국항공우주 (047810)	80,100 (+15.8)	69,200 (0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25%에 달했던 오버행 물량은 현재 11%로 축소되었고, 남은 물량 중 한화테크윈 지분 6%는 시장 출회 가능성이 낮음. 오버행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어 주가 상승 제한 요인 해소 - 국내 수리온헬기 3차 양산과 상륙기동헬기 등 약 3조원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태국 등 다수의 국가와 T-50시리즈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6,920 (+4.1)	6,650 (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amel Tree' 콘텐츠를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의 세계적 출판 유통기업인 IPG사와 스토리북 배분 계약을 맺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세 둔화로 교육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학원의 과점화에 따른 수혜 예상. 또한 시가배당을 6%를 상회하는 배당매력을 견비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한국항공우주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코렌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코렌텍 (104540)	16,150 (-8.2)	17,600 (07/12)	42.5	4.4	3.0	185	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된 표면처리 기술(MAO, 금속 3D 프린팅)을 보유한 국내 고관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공관절 시장 성장의 수혜 -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정형외과전문 연구기관 및 인공관절 전문의들과의 개발자문 계약 체결로 미국 시장 중심의 해외 매출 성장 본격화 예상 				
대상 (001680)	30,100 (+2.6)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 -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 -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삼광글라스 (005090)	79,800 (-11.5)	90,200 (05/31)	327	21	40	8,163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홈쇼핑 채널 및 온라인을 계약으로 판매채널 다각화에 성공. 올해는 로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으로 실적 호전 전망 - 군장에너지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큰 규모의 GE4(250MW)기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2분기부터 군장에너지의 실적 회복 기대 				
SK머티리얼즈 (036490)	159,000 (+28.2)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한섬 (020000)	38,750 (-4.0)	40,350 (04/22)	710	84	69	3,132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 -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 -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 				
유한양행 (000100)	303,500 (+9.6)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 -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김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리츠: K-REIT의 시작

■ 시중 유동성 폭발, 처음 경험하는 저금리 시대

실질금리 제로시대다. 현금흐름이 담보되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변화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 들어 일본 리츠재간접 펀드의 수익률은 10%인 반면 주식형펀드는 -10%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후행하는 한국 금융시장에 시사점이 크다. 리츠 성장으로 1) 대출, PF보다 상장리츠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로 부동산 개발이 용이해지고, 2) 일반 소액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며, 3)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가 기대된다.

■ 특화리츠의 성장으로 산업/금융/부동산의 복합 발달 예상

선진국 리츠는 초기 오피스 위주에서 점차 리테일/호텔/물류 등 특화리츠로 성장했다. 한국 리츠도 투자자산이 다양해지며 오피스 비중이 2014년 58%에서 2015년 48%로 하락했다. 금산복합상품인 특화리츠는 배당(passive income) 외에 기반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동시에 누린다는 장점이 있다. 하반기에는 모두투어리츠, 코크랩6호 등 다양한 리츠가 상장되고 홍콩의 Link-REIT와 같은 서울리츠 등 공공리츠도 선보인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정부기관 혹은 대기업, 디벨로퍼가 앵커로 참여한 스폰서리츠 위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 K-REIT와 J-REIT 유망. 관련주 맥쿼리인프라, 대림산업, 니혼로지스틱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리츠의 성장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시장 붕괴로 리츠가 헐값에 자산을 매입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붕괴도 급등도 없었다는 점에서 여건이 다소 불리하다. 그러나 이제 막 개화 단계이고 정부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K-REIT의 성장성은 높다. 글로벌 리츠의 밸류에이션과 부동산 전망을 고려할 때 K-REIT와 J-REIT가 유망하다. 리츠 직접투자 외에도 건설사로서 최초의 리츠 앵커로 일본 디벨로퍼가 보였던 효율적인 자산개발의 준비를 마친 대림산업, 민간인프라 펀드인 맥쿼리인프라 등이 유망하다. J-REIT에서는 물류리츠인 니혼로지스틱스를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인터넷: Facebook과 Alphabet 실적의 시사점

■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양호한 2분기 실적

Facebook과 알파벳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Facebook의 매출액은 광고 단가 상승과 84%까지 확대된 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을 바탕으로 64.3억달러(+59.2% YoY, +19.6% QoQ)를 기록했다. MAU는 17.1억명(+14.8% YoY, +3.5% QoQ)으로 증가했으며 모바일 MAU는 15.7억명으로 전체 MAU 대비 91.9% 수준이다. 알파벳 또한 작년 3분기부터 시행된 광고 포맷 변화에 따른 모바일 검색 광고의 견조한 성장, YouTube 매출 확대, 프로그래매틱 광고 호조로 215억달러(+21.3% YoY, +6.1% QoQ)의 양호한 매출을 기록했다. 광고 매출액은 유효클릭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함에 따라 191억달러(+19.6% YoY, +6.1% QoQ)로 증가했다.

■ 모바일 광고, 지속적인 효율 개선

트래픽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광고의 효율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Facebook은 UX(User Experience)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Ad Load(사이트 내 광고 탑재 비중)를 유지하는 동시에 타겟팅 고도화를 통한 단가 상승을 계획 중이다. 동영상과 Canvas 광고 등 광고주의 ROI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 출시 또한 확대 중이다. 알파벳의 검색 광고 매출 역시 2015년 3분기 효율 개선을 위한 광고 포맷 변화를 시행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머신러닝을 통한 YouTube 광고 효율 개선 및 검색 정확도 향상 또한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동영상, 향후 성장의 공통 분모

알파벳, Facebook, Twitter 모두 동영상 콘텐츠가 향후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YouTube의 경우 'Google Preferred(YouTube 상위 5% 이내 엄선된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광고 상품)' 등의 상품들을 통해 의미있는 매출을 창출 중이며 올해 패키지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Facebook 또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확대가 DAU의 견조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Twitter 또한 향후 Live 동영상을 통해 실적 반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Live 동영상에 대해서는 360도 동영상 기능 제공, 메이저 스포츠 리그와의 협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6년 1.5조원(+18.4% YoY)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고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검색 광고 상품 다양화와 효율 개선으로 PPC(Price per Click)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 Naver는 이용자가 지역 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문의전화, 온라인 예약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최적화 검색 서비스인 '플레이스'를 본격 도입했다. 광고 상품 구매 후 식당들의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광고주들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PPC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여행, 항공권 구매, 쇼핑 등의 다양한 영역의 모바일 광고 상품들의 출시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주 수요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파라다이스(03423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원(유지)

종가(8/4): 16,200원

높은 홀드율이 가져온 실적 개선

■ What's new :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달성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90억원(+32.2% YoY), 328억원(+147.6% YoY)를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각각 53%, 69% 상회했다. 예상보다 큰 외형 확대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이익 개선폭이 크게 나타났다. 부문별 매출액은 카지노 1,667억원(+35.9% YoY), 호텔 193억원(+6.7% YoY), 기타 31억원(+34.7% YoY)였다. 영업이익률은 17.3%로 전년동기대비 8.1%p 상승했다. 부산카지노 실적은 작년 3분기부터 연결계상돼 16년 3분기 실적부터는 베이스가 동일해진다.

■ Positives : 홀드율 상승에서 비롯된 큰 폭의 이익 개선

연결 영업이익이 3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6%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 늘며 외형 확대를 시현했다. 2) 수익 호전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3) 전년동기 실적이 메르스 여파와 영업직원 단속으로 낮았던 기저효과가 발현됐다. 4) 2분기 홀드율은 13.1%로 전년동기 대비 2.1%p, 전분기대비 2.6%p 상승했다. 전년동기 부산카지노가 통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동일한 기준인 1분기와 비교하면 2분기 연결대상 카지노의 VIP 일 게임인원은 41,153명으로 3.1% 증가했고 드롭액은 2.8% 감소했다. 반면 카지노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21% 증가했는데 이는 카지노의 승률이 크게 상승한 효과다. 홀드율 상승으로 외형 성장이 크게 나타나 성과와 연동되는 콤프 등 변동비가 크게 늘지 않고 고정비 등은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돼 이익 개선이 나타났다.

■ Negatives : 단기 비용 증가 수반될 전망

중장기 성장을 위한 사업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만 단기 비용 부담 증가는 수반될 전망이다. 3분기 중 부산영업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감가상각비 등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오픈을 앞둔 카지노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관련 하반기 인원 채용이 예정돼 있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예상돼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증가할 것이다.

■ 결론 : 중장기 성장원 보유, 매수 의견 유지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0,000원(12개월 forward PER 22배 적용)을 유지한다. 마카오 카지노 성과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심리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반기에 전년 기저 효과 등으로 이익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첫 복합리조트로서 기존 카지노와 차별화된 매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중장기 성장성을 높여줄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81	189	4.6	175	20.4	32.2	718	685
영업이익	19	33	69.4	21	113.6	147.6	90	78
영업이익률	10.7	17.3	6.6	12.3	7.6	8.1	12.6	11.4
세전이익	24	36	52.9	25	81.5	113.5	107	96
순이익	17	25	48.4	19	74.6	135.8	77	71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전력(015760)

매수(유지)

목표가: 71,000원(유지)

종가(8/4): 61,300원

가치를 보면 여전히 매력적, 모멘텀은 점차 둔화

■ What's new : 영업이익 2.7조원으로 30% 증가

2분기 매출액은 13조 2,7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2조 7,045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우리 추정치(2조 8,005억원) 및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발전믹스가 향상(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된데다 LNG가격 하락으로 발전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분기 전력판매량은 1.5% 늘어났는데 판매단가 0.9% 하락해 전기판매수익은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기에 해외사업수익이 21%나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감소했다. 한전의 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Positives : 여전히 우호적인 영업환경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기저발전 비중은 72.0%(원전 33.5%, 석탄 38.5%)로 전년동기 69.8%(원전 30.1%, 석탄 39.7%)대비 2.2%p 높아지는데 그쳤다. 발전믹스가 조금 개선되는데 그쳤는데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유가하락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원전 1기와 석탄발전기가 최대 5기까지 추가 준공될 예정인 만큼 상반기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믹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연 2% 이내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국전력의 발전믹스는 2019년까지 좋아지므로 장기 이익 증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 Negatives : 이익증가 모멘텀 ↓

한국전력의 주가가 3년 째 시장대비 큰 폭으로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이익 모멘텀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매 분기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이익을 발표하면서 이를 에너지 삼아 주가가 레벨업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표됐다. 당분간 이익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비용이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결론 :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지표'와 '둔화된 이익 모멘텀' 간의 힘겨루기

PER 4배, PBR 0.5배(ROE 13%)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 하지만 규제산업이라는 한계를 지닌 가운데 이익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만년 저평가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레벨업 되려면 이익 모멘텀이 다시 커지거나, 규제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정부 발 정책모멘텀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 보여 주가도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등락하지 않을 것 같다.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71,000원을 유지한다(목표주가는 BPS 추정치에 목표 PBR 0.62배를 적용해 구한 것으로 2월 5일에 제시한 것).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672	13,275	(1.8)	13,748	(15.4)	(2.9)	60,084	59,923
영업이익	2,801	2,704	(3.5)	2,716	(25.0)	29.5	14,316	13,753
영업이익률	20.5	20.4	(0.1)	19.8	(2.6)	5.1	23.8	23.0
세전이익	2,279	2,404	5.5	2,365	(31.5)	38.7	13,242	12,551
순이익	1,731	1,768	2.1	1,858	(19.2)	32.3	9,389	8,647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화테크윈(012450)

매수(유지)

목표가: 73,000원(상향)

종가(8/4): 59,200원

기대를 또 뛰어넘다

■ What's new : 실적 서프라이즈

한화테크윈(이하 테크윈)의 2분기 실적은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였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1% 늘어난 8,207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흑자전환(2Q15에 인수위로금 약 900억원 지급해 적자)해 445억원(영업이익률 5.4%)을 기록했다. 2분기 특이 사항은 5월말 인수한 한화디펜스(구 두산DST)의 6월 한 달 실적이 연결로 인식되면서 매출액 675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이 기존 테크윈 실적에 추가 반영됐다. 방산부문 영업이익률은 9.2%로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탈레스 등에서 인식한 지분법이익은 27억원이고, 세전이익은 405억원을 기록했다.

■ Positives : 방산부문, 수출 물량의 늘어난 수익성

방산부문은 매출액 1,911억원, 영업이익률 9.2%를 기록했다. 폴란드 수출 물량이 약 200억원 매출로 인식됐다. 1분기 순수 국내 방산 물량의 영업이익률이 5%였음을 감안하면,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분담효과를 감안해도 수출 물량의 영업이익률이 30%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남은 기간 약 700억원의 폴란드 수출 물량이 추가로 매출로 인식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3분기와 4분기에도 방산부문 수익성은 양호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해외 수주가 추가될(폴란드 후속 MOU 물량, 인도 수주 하반기 기대)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낼 것이다. 부문별로는 IMS(칩마운터)가 매출 증가와 비용 감소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SS(CCTV) 사업부와 PS(엔진, 압축기) 사업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이익을 기록했다.

■ Negatives : 압축기 부문 적자 지속

PS에 속한 에너지부문(압축기)에서 여전히 적자 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비용 감소로 적자 폭은 전분기 15억원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미미하다.

■ 결론 : 아직 꺼지지 않은 모멘텀, 매수 기회

목표주가를 73,000원으로 10% 상향한다. 예상보다 빠른 비용절감 효과와 방산부문 영업이익률 상향조정을 반영했고, 최근 인수한 한화탈레스의 실적을 2017년 연결 실적 추정치에 반영(기존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했다. 이를 종합해 2016년, 2017년 EPS 추정치를 각각 3.5%, 19.2% 상향했고 SOTP를 이용해 목표 주가를 산출했다. 최근 기대했던 M&A 이벤트들이 현실화 됐지만, 여전히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고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76	821	5.8	730	27.7	35.1	3,375	3,084
영업이익	36	44	22.9	36	40.2	흑전	182	152
영업이익률	4.7	5.4	0.8	4.9	0.5	18.5	5.4	4.9
세전이익	37	41	8.4	NA	(84.0)	흑전	398	380
순이익	29	31	8.1	29	(84.0)	흑전	309	30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BGF리테일(027410)

매수(유지)

목표가: 300,000원(유지)

종가(8/4): 201,000원

2Q16 Review: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

■ What's new : 2분기 영업이익 627억원(+22.1% YoY)

BGF리테일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우리의 추정치는 하회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1조 2,72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2.1% 늘어난 627억원이다. 밴수수료 영향을 제거한 실질 영업이익 증가율은 38.3%로 계산된다. 점포수는 2분기 중 414개 늘어나며 2분기말 기준 10,106개점을 기록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신선식품이 전년동기대비 5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중 도시락은 192% 증가했다. 음료와 빙과가 포함된 식품 상품군의 매출증가율은 13.8%로 계산된다. 2분기 실적에 미친 밴수수료 영향은 약 60억원으로 파악되며, 지난해 7월 20일까지 수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 미칠 영향은 20억원 미만으로 계산된다.

■ Positives : 높은 base에도 지속되는 성장

점포순증 수는 우리의 예상(400개)을 소폭 상회했다. 다만 매출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았는데, 일찍 시작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음료와 빙과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점 증가는 여전히 도시락 등 신선식품 매출이 늘어나며 개별점포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연간 신규점포 순증 수는 1,400개이며, 상반기 중 697개를 기록했다.

■ Negatives : 추정치 하회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우리의 추정치 대비로는 약 70억원 하회했다. 원인은 밴수수료 과소추정과 음료 및 빙과 매출의 과대추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3분기 추정치에는 수정된 수치로 1개월분을 반영했다. 2분기 음료 및 빙과 매출증가율 13.8%(상품군 매출비중으로 계산된 수치)는 점포수 증가율 14.7%와 유사한 수준인데, 신규점 영업일수와 초기 매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고마진 상품의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0,000원 유지

2분기 매출은 14.6%, 영업이익률은 0.3%p 높아졌다. 과거 신규점 확대에 따른 초기마진 훼손이 나타나던 시기와는 다르다. 여전히 도시락은 고성장하고 있으며 신규점 확대에 따라 마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BGF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0,000원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2016F와 2017F EPS 추정치를 각각 8.0%, 7.4%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현재주가는 12MF PER 23.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목표주가는 12MF PER 35.3배에 해당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32	1,272	(4.5)	1,324	16.5	14.6	5,111	5,143
영업이익	70	63	(10.2)	64	126.1	22.1	220	208
영업이익률	5.2	4.9	(0.3)	4.8	2.4	0.3	4.3	4.0
세전이익	75	67	(10.7)	66	72.4	19.7	247	233
순이익	58	52	(9.1)	51	79.4	25.1	190	175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0원(하향)

종가(8/4): 83,800원

중장기적 기업가치 유효

■ What's new :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하회

2분기 매출액은 3,146억원(+13% YoY), 영업이익은 8.5억원(-90.1% YoY)을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 우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90% 이상 하회했다. 매출액 성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사이트와 관객수가 증가했고 터키 법인 실적이 연결 편입된 효과에 기인한다. 그러나 캐시카우인 국내 실적이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크게 부진해 별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1.7% 감소했고 터키 법인 인수 관련 초기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세전이익과 순이익 감소폭은 영업이익 대비 적었는데 터키 법인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유로화 매입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이익이 약 45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국내외 멀티플렉스 시장 내 입지 강화는 지속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 강화는 지속됐다. 국내 직영관객수는 전년동기대비 3.2% 늘어 직영 점유율은 0.7%p 상승했다. 2분기 중국 박스오피스 규모는 4.9% 감소했으나 CGV는 신규 사이트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25.3% 증가했다. CGV 베트남 박스오피스는 13.1% 증가해 시장 성장률(+0.8% YoY)을 상회했다.

■ Negatives : 수익성 부진

영업이익률은 0.3%(-2.8%p YoY)를 기록했다. 국내 영화관 실적이 관객수는 늘었으나 ATP 하락 등으로 외형 성장에 실패했고 직영점 증가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상승해 부진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연결 계상된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 실적은 2분기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매출액은 127억원 더해졌으나 라마단 기간(6~7월)에 반영돼 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인수 초기 비용(15억원), 무형자산상각비(15억원)가 반영됐다. 중국은 박스오피스 성과 부진으로 연결법인이 손실이 발생해 합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베트남 법인 영업이익은 특별관 포맷 영화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1.7% 줄었다.

■ 결론 : 중장기적 기업가치는 유효

홍행 콘텐츠 부진으로 일시적인 실적 변동성은 피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자로서의 중장기적 기업가치는 유효하다. CJ CGV에 대한 매수 의견은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12만원(SOTP 방식 적용)으로 기존대비 11.8% 낮춘다. 터키 법인 실적을 하향해 터키 부문 가치를 낮췄다. 단기적으로 7월 국내 영화 박스오피스와 관람객수는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등이 흥행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12% 증가해 성과 호조세를 기록 중이다. 멀티플렉스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시장에서는 시장 확대와 함께 입지 강화를 통해 이익 개선이 예상돼 중장기 성장원이 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37	315	(6.7)	331	0.1	13.0	1,531	1,481
영업이익	8	1	(89.8)	12	(95.2)	(90.1)	73	94
영업이익률	2.5	0.3	(2.2)	3.7	(5.4)	(2.8)	4.8	6.3
세전이익	5	9	68.8	11	(52.0)	(47.5)	67	89
순이익	3	5	54.2	6	(61.0)	(54.3)	40	6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대한통운(000120)

매수(유지)
목표가: 280,000원(유지)
종가(8/4): 214,000원

택배에 해외부문까지 더해져 고성장세 계속된다

■ What's new : 택배와 해외부문의 쌍끌이 고성장세 확인

2분기 매출액은 1조 5,136억원으로 19.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97억원으로 33.6% 늘어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우리 추정치 및 컨센서스 수준이다.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택배부문이 여전히 고성장하는 가운데 매출의 32%를 차지하는 글로벌 부문이 또 다른 고성장 축으로 떠올랐다. 글로벌과 택배 부문이 함께 고성장하는 그림이다. CJ대한통운의 2분기 택배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9.8% 늘어나 시장 성장률(12.0%)를 크게 상회했으며 시장점유율도 45%까지 높아졌다. 작년 가을에 인수한 중국 물류회사(CJ Rokin)가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CJ대한통운의 연결기준 실적에 포함되면서 2분기 글로벌부문의 고성장(매출액 39.8% 증가)을 주도했다. 최근 인수한 Speedex(중국 대형 전자업체의 물류자회사)도 captive demand를 등에 업고 고성장 할 전망이며 내년부터 CJ대한통운 이익 증가추세에 힘을 보탤 것이다.

■ Positives : Speedex 인수, 장기적으로 이익에 큰 보탬이 될 것

CJ대한통운이 지분 50%를 인수한 Speedex는 미래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 회사는 중국의 3대 전자업체인 TCL 그룹(연매출 약 19조원)의 물류 자회사로 TCL그룹 물류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CJ대한통운의 선진 물류기법이 이전되면서 수 년 내에 TCL그룹 물류의 100%까지 커버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작년에 인수한 CJ Rokin과 함께 중국 내에서 CJ대한통운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3자물류 수주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Speedex 인수에 대해 공개된 간략한 계약내용을 보면 TCL그룹의 물량을 Speedex가 보장 받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Speedex는 삼성전자 자로지택,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벌비스, 삼성SDS 물류부문 등이 고성장 해 온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 Negatives : 높은 valuation

올해 매출액이 25.6% 증가하고 EPS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올해 예상이익 기준 PER이 39.6배로 높다. 단기투자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 결론 :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장기적으로는 높은 이익증가율이 투자포인트

택배수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낮아진 수익성이 규모의 경제효과에 힘입어 다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해외부문에서의 성장 모멘텀(이익증가 + 추가 M&A)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8만원을 유지한다. 장기 투자관점이라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목표주가는 DCF 모델과 PER을 사용해 구한 주가를 평균한 것으로 15년 10월 6일에 제시한 것).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06	1,514	0.5	1,488	4.7	19.5	6,019	5,999
영업이익	59	60	2.0	58	12.1	33.4	263	241
영업이익률	3.9	3.9	0.1	3.9			4.1	4.0
세전이익	22	37	71.2	37	30.2	194.1	138	148
순이익	16	25	61.9	27	6.6	576.1	94	108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오쇼핑(035760)

매수(유지)
목표가: 220,000원(유지)
종가(8/4): 159,500원

2Q16 Review: 알찬 실적

■ What's new : 2Q16 연결기준 영업이익 544억원(+19.1% YoY)

CJ오쇼핑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치에 부합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1% 늘어난 544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홈쇼핑 실적인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7%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의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는데, TV쇼핑이 4.2% 감소하고, 인터넷쇼핑이 12.6% 줄어들었다. 모바일쇼핑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났다. 상품군별 추이는 의류가 줄고 이미용이 증가하는 등 홈쇼핑 산업 동향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 Positives : 실리를 찾은 실적

취급고 역신장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큰 폭의 개선을 나타냈다. 백수오 사태로 인한 전년동기 일회성 손실 4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39.1%로 계산된다. 모바일쇼핑 마케팅 비용은 61억원(앱 다운로드 41억원, 모바일 단독 판촉행사 20억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까지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10.3%로 계산된다. 상품마진 개선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홈쇼핑 산업에서 외형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실리를 찾는 전략은 상대우위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Negatives : 해외 부진은 당분간 지속

중국과 인도, 동남아 등 해외사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동방CJ의 지분법손익 60억원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의 손실로 인해 해외 계열사 지분법손익은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 하반기 영업현황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며, 해외 사업의 턴어라운드 시기는 더 늦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분간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신규지역의 영업손실에 더 크게 좌우되는 시기로 보인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SO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해외사업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는 CJ오쇼핑의 영업력 회복에 주목할 시점이다. 상품 Mix 개선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취급고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CJ오쇼핑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2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12MF PER 7.7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0.7배에 해당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76	555	(3.7)	578	2.0	(5.8)	2,225	2,286
영업이익	54	54	1.5	53	(8.0)	19.1	220	226
영업이익률	9.3	9.8	0.5	9.2	(1.1)	2.0	9.9	9.9
세전이익	45	47	4.5	45	(16.7)	19.4	187	191
순이익	28	24	(11.6)	29	(25.4)	12.1	111	122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CC(002380)

매수(유지)

목표가: 610,000원(유지)

종가(8/4): 408,000원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천억원을 넘다!

■ What's new : 4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9,090억원, 영업이익은 27.4% 증가한 1,052억원, 순이익은 8.2% 증가한 603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외면돼 왔지만 작년 2분기 이후 매분기 서프라이즈다. 순영업외비용이 평소 분기보다 컸는데 이는 그간 자주 발생했던 지분매각차익(작년 1분기 벽산, 4분기 현대차 주식 매각)이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영향이다. 부문별 수치와 내용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 감사보고서 발간 이후 실적 추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 Positives : 영업이익률 11.6%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11.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1) 원재료 하락 효과가 지속되는 와중에 작년 상반기 악영향을 미쳤던 도로 ASP 인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며, 2) 건자재 출하가 늘며 고정비 절감 효과가 커졌고, 3) 단열재/석고보드/유리 등 수익성 좋은 독과점적 품목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공장 확장 이전으로 무기질단열재와 유리공장 생산용량(30%)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2분기에는 약 100억원 이상의 지급수수료(엘리엇 소송 대응)이 판관비로 지출된 반면, 이번에는 일회성 이슈가 없었다. 또한 장기간 지분가치 훼손을 야기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도 최근 실적 정상화 기조를 보이며 오롯이 영업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Negatives : 약한 top-line 성장률

2분기 매출 성장률은 5.9%로 1분기 2.1% 대비 개선됐으나 고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자재는 high-single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도로 생산량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매출은 역성장 추세다. 이번 분기도 top-line 성장은 건자재가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생산량이 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방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 결론 : 비주택 건자재에 upside 열려 있어. 건자재 top pick

이전에 발표된 타 업체들과 비교시 KCC의 서프라이즈의 주요인은 높은 비주택 건자재(단열재/석고보드/유리)의 높은 비중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열재와 석고보드(20% 증설 중)는 전사 아이템 중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는데 독과점 품목으로 플랜트/상업용건물에 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설비투자(작년 발주된 S-oil, 삼성전자 평택단지, 내년 착공할 현대차 GBC) 증가와 재정정책이 장기간 비주택 건자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자재 top picks는 비주택에 노출도가 높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돼있고 이익 upside를 기대할 수 있는 KCC와 벽산이다. KCC의 PBR은 0.7배로 역사적 최저이며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감안한 수정 PER은 6배에 불과하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04	909	0.5	886	15.5	5.9	3,606	3,524
영업이익	95	105	10.8	92	22.8	27.5	341	347
영업이익률	10.5	11.6	1.1	10.4	0.7	2.0	9.5	9.8
세전이익	100	82	(18.0)	103	4.6	7.6	362	364
순이익	75	60	(19.6)	73	2.9	8.2	272	27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029.61	2,019.03	1,994.79	2,000.03	2,017.94	
	등락폭	13.42	-10.58	-24.24	5.24	17.91	
	등락종목	상승(상한)	381(1)	348(0)	253(1)	464(0)	404(1)
		하락(하한)	425(0)	468(1)	556(0)	320(0)	408(0)
	ADR	93.49	92.67	94.79	91.78	95.59	
	이격도	10 일	100.54	100.01	98.91	99.23	100.08
		20 일	101.23	100.63	99.32	99.51	100.27
	투자심리	3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70	410	486	327	287
	거래대금	(십억 원)	4,822	4,314	4,387	3,648	4,121
코 스 닥	코스닥지수	703.72	700.9	698.32	701.67	696.09	
	등락폭	-2.52	-2.82	-2.58	3.35	-5.58	
	등락종목	상승(상한)	500(1)	451(0)	392(2)	625(2)	425(2)
		하락(하한)	579(0)	633(1)	687(1)	456(0)	652(0)
	ADR	102.54	102.11	101.71	102.13	101.21	
	이격도	10 일	99.84	99.46	99.19	99.76	99.13
		20 일	100.40	99.94	99.48	99.91	99.09
	투자심리	6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94	726	738	688	634
	거래대금	(십억원)	3,744	4,146	3,681	4,145	4,053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924.2	1,197.3	946.5	186.5	178.3	206.5	99.0	8.6	267.7	55.5
	매도	2,125.0	945.7	1,022.2	241.5	209.1	241.6	80.3	11.1	238.6	30.7
	순매수	-200.8	251.7	-75.7	-55.0	-30.8	-35.1	18.7	-2.6	29.1	24.8
	8월 누계	101.5	562.6	-858.4	-404.1	-48.6	-245.4	-125.7	-12.2	-22.3	194.3
	16년 누계	-4,344.0	8,183.3	-5,399.2	-1,450.9	1,321.6	-3,539.4	-1,130.6	-791.9	192.3	1,559.8
코 스 닥	매수	3,694.7	204.9	132.3	46.0	16.7	26.0	19.2	1.3	23.2	25.8
	매도	3,567.4	233.3	226.7	44.6	36.1	63.5	25.4	3.7	53.4	30.4
	순매수	127.4	-28.4	-94.4	1.4	-19.5	-37.6	-6.2	-2.4	-30.2	-4.6
	8월 누계	325.9	-5.8	-253.2	-38.9	-39.0	-87.3	-33.1	-5.0	-49.8	-66.9
	16년 누계	4,222.8	416.2	-3,097.1	-389.4	-171.7	-987.8	-522.3	-126.1	-899.8	-1,541.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9,421	화학	-44,859
운수장비	9,195	서비스업	-17,447
증권	9,055	미분류	-12,444
한국전력	9,404	아모레퍼시픽	-27,280
NH투자증권	6,472	LG생활건강	-10,364
삼성물산	6,102	KODEX 200	-10,037
현대모비스	4,885	삼성전자	-9,236
SK이노베이션	4,178	오리온	-6,70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7,540	화학	-32,051		
유통업	10,386	음식료	-4,142		
증권	8,278	전기가스	-3,813		
삼성전자	16,095	아모레퍼시픽	-19,420		
KCC	12,704	LG생활건강	-15,987		
삼성물산	11,674	엔씨소프트	-9,098		
SK	10,366	CJ	-8,198		
현대중공업	9,289	한국항공우주	-4,99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862	미분류	-15,013
은행	640	서비스업	-1,595
증권	553	운수장고	-951
TIGER 헬스케어	1,333	KODEX 레버리지	-12,701
KODEX 인버스	881	KODEX 200	-1,355
기업은행	573	TIGER 레버리지	-1,033
NH투자증권	553	팬오션	-942
코오롱인더	542	STX중공업	-80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9,486	화학	-26,057
기타금융업	5,595	서비스업	-17,303
운수장비	4,381	미분류	-5,987
삼성전자	10,706	LG생활건강	-7,850
현대중공업	5,507	아모레퍼시픽	-7,205
SK	2,889	엔씨소프트	-6,022
삼성물산	2,827	CJ	-3,693
KCC	2,781	KODEX 200	-3,42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8,271	화학	-112,132
증권	20,001	서비스업	-36,383
기계	13,875	음식료	-23,398
KODEX 레버리지	42,678	아모레퍼시픽	-59,043
KCC	23,313	KODEX 인버스	-45,698
현대중공업	22,675	LG생활건강	-35,993
삼성물산	20,017	엔씨소프트	-21,116
SK하이닉스	16,477	오리온	-19,073
삼성전기	12,771	CJ	-12,250
SK이노베이션	9,346	한국콜마	-7,331
SK	9,279	OCI	-6,980
현대건설	8,873	GKL	-6,933
NH투자증권	8,796	CJ CGV	-6,61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0,634	전기가스	-17,725		
서비스업	48,324	의약품	-13,262		
운수장비	47,789	증권	-2,684		
아모레퍼시픽	54,456	한국전력	-18,096		
LG생활건강	25,808	KCC	-11,721		
엔씨소프트	19,198	기아차	-11,158		
NAVER	17,249	삼성화재	-6,730		
한화테크윈	14,683	삼성전기	-6,472		
오리온	14,436	KODEX 인버스	-5,816		
SK하이닉스	12,231	LG화학	-4,447		
한국항공우주	12,088	한미사이언스	-4,376		
삼성SDI	10,770	아모레G	-4,355		
LG유플러스	8,339	한미약품	-4,24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598	방송서비스	-7,688
일반전기전자	187	오락,문화	-7,608
자동차판매	142	제약	-3,529
AP시스템	1,616	CJ E&M	-7,480
셀트리온	9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761
나무가	673	엠지메드	-2,778
로엔	598	파인디지털	-2,164
옵트론텍	536	케어젠	-2,08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495	방송서비스	-15,748
일반전기전자	364	의료,정밀기기	-4,860
IT부품	319	제약	-2,634
AP시스템	1,138	CJ E&M	-15,210
서울반도체	1,047	뉴웁스	-2,230
톱텍	605	케어젠	-2,160
옵트론텍	579	오스템임플란트	-2,068
동진세미켐	573	테스	-1,35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195	반도체	-796
IT부품	131	운송장비,부품	-638
환경	93	제약	-406
원익머트리얼즈	293	코다코	-535
제이브이엠	157	유니셀	-357
서원인텍	111	비아트론	-264
인선이엔티	93	아이진	-262
톱텍	53	오스템임플란트	-24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060	방송서비스	-4,721
기계,장비	591	의료,정밀기기	-3,221
디지털컨텐츠	213	오락,문화	-3,160
에프티이앤이	843	CJ E&M	-4,780
셀트리온	61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482
제이브이엠	482	오스템임플란트	-1,102
나노신소재	434	원익머트리얼즈	-1,033
이-글 벳	426	서부T&D	-99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543	방송서비스	-25,341
사업지원	412	오락,문화	-16,174
일반전기전자	369	의료,정밀기기	-14,805
셀트리온	3,450	CJ E&M	-26,779
AP시스템	3,408	오스템임플란트	-8,764
테라세미콘	1,95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376
옵트론텍	1,394	파라다이스	-5,100
원익홀딩스	1,168	케어젠	-4,910
CJ오쇼핑	1,111	파인디지털	-2,980
톱텍	1,080	테스	-2,823
씨젠	1,013	엠지메드	-2,779
에스에프에이	979	에스티	-2,498
제이스텍	957	에스엠	-2,31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3,440	제약	-8,233
반도체	2,939	의료,정밀기기	-7,436
오락,문화	1,547	IT부품	-4,933
서울반도체	3,857	오스템임플란트	-6,601
메디톡스	3,094	AP시스템	-4,111
원익홀딩스	2,304	CJ E&M	-2,562
테스	2,248	휴젤	-2,247
CJ오쇼핑	2,187	뉴트리바이오텍	-1,981
더블유게임즈	2,171	에스티팜	-1,398
유진테크	2,082	인바디	-1,397
포스코 ICT	2,065	제이스텍	-1,365
이오테크닉스	1,709	코미팜	-1,354
컴투스	1,519	웹젠	-1,326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진도	20 일	BYC	34 일
아시아나항공	19 일	엔씨소프트	27 일
QV 내수소비 TOP5 ETN	18 일	롯데손해보험	23 일
경동가스	18 일	JB금융지주	22 일
대상	17 일	화신	20 일
동양고속	14 일	영원무역홀딩스	20 일
KT	13 일	진양홀딩스	18 일
TIGER 나스닥바이오	12 일	에스엘	1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티비씨	19 일	하이록코리아	37 일
서원인텍	15 일	유진테크	23 일
유아이엘	14 일	서전기전	22 일
이에스브이	11 일	KB오토시스	20 일
빅솔론	9 일	탑엔지니어링	18 일
우리산업홀딩스	9 일	YW	17 일
세코닉스	9 일	솔루에타	16 일
한국4호스팩	8 일	인터엠	1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기	48,152	아모레퍼시픽	96,158
현대중공업	43,049	NAVER	83,351
삼성에스디에스	40,685	TIGER 200	81,678
KT	36,181	엔씨소프트	53,651
KCC	34,065	LG유플러스	46,563
삼성SDI	33,204	LG생활건강	45,503
현대증권	32,254	한화테크윈	39,726
KODEX 레버리지	27,423	롯데케미칼	37,016

KOSDAQ			
기	관	외	국 인
AP시스템	15,930	에스티팜	25,303
셀트리온	9,891	SK머티리얼즈	8,419
에스에프에이	7,705	유진테크	7,777
비아트론	5,419	포스코 ICT	5,737
동진세미켐	4,946	컴투스	5,553
툽텍	3,908	원익IPS	5,412
옵트론텍	3,627	파라다이스	5,030
피엔티	3,581	메디투스	4,58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48,271		23,998		72,269	
운수장비		10,601		47,789		58,390	
기계		13,875		12,903		26,778	
KODEX 레버리지		42,678		2,429		45,108	
현대중공업		22,675		7,932		30,607	
SK하이닉스		16,477		12,231		28,708	
삼성물산		20,017		3,385		23,402	
NAVER		3,366		17,249		20,615	
삼성SDI		5,746		10,770		16,516	
SK이노베이션		9,346		6,844		16,189	
두산중공업		8,121		7,695		15,816	
현대차		6,269		5,930		12,199	
SK		9,279		696		9,975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301		1,232		1,533
부동산			0		164		164
숙박,음식			0		137		137
서울반도체			265		3,857		4,122
원익홀딩스			1,168		2,304		3,472
CJ오쇼핑			1,111		2,187		3,298
더블유게임즈			814		2,171		2,985
테라세미콘			1,957		670		2,627
포스코 ICT			52		2,065		2,117
컴투스			115		1,519		1,634
로엔			357		1,155		1,512
동국S&C			310		1,142		1,452
제이브이엠			890		194		1,08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오리온	43 일	부국증권	28 일
롯데손해보험	42 일	하이트론	25 일
QV 하드웨어 ETN	31 일	사조대림	23 일
이마트	30 일	한솔아트원제지	20 일
태경산업	29 일	KPX케미칼	18 일
아모레퍼시픽	28 일	대한제분	15 일
이수페타시스	26 일	NPC	14 일
한솔홀딩스	26 일	하나투어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하이록코리아	36 일	와이비엠피넷	57 일
유니크	35 일	대동금속	31 일
쿠첸	29 일	텔레칩스	30 일
코텍	23 일	YTN	26 일
이젠텍	22 일	대정화금	17 일
엔에스	15 일	대화계약	17 일
JYP Ent.	15 일	서연전자	15 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4 일	씨티씨바이오	1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모레퍼시픽	-139,106	현대상선	-102,270
동양	-96,275	삼성전자	-51,542
TIGER 200	-79,574	기아차	-38,773
LG생활건강	-73,962	삼성엔지니어링	-24,032
삼성전자	-69,301	LG전자	-21,490
엔씨소프트	-56,764	코웨이	-17,621
CJ CGV	-55,536	KCC	-15,739
한미약품	-50,482	KB금융	-14,019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41,577	CJ E&M	-11,05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8,807	인바디	-9,844
에스티팜	-23,978	팍스넷	-6,964
에스엠	-15,554	등진세미켐	-4,675
팍스넷	-12,338	모두투어	-4,342
오스템임플란트	-12,077	비아트론	-4,198
코오롱생명과학	-6,480	케어젠	-4,074
피에스케이	-6,078	이녹스	-4,05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13,112	-13,262	-26,374
화학	-112,132	90,634	-21,498
전기가스	2,251	-17,725	-15,475
KODEX 인버스	-45,698	-5,816	-51,514
기아차	-2,875	-11,158	-14,033
아모레G	-6,363	-4,355	-10,718
한미약품	-4,920	-4,248	-9,168
LG화학	-2,411	-4,447	-6,858
한미사이언스	-791	-4,376	-5,167
코스맥스	-3,524	-1,299	-4,823
농심	-1,178	-2,650	-3,827
잇츠스킨	-3,520	-208	-3,727
현대상선	-3,543	-161	-3,705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25,341	-335	-25,676
의료,정밀기기	-14,805	-7,436	-22,241
계약	-8,690	-8,233	-16,923
CJ E&M	-26,779	-2,562	-29,341
오스템임플란트	-8,764	-6,601	-15,366
케어젠	-4,910	-363	-5,272
휴젤	-1,134	-2,247	-3,381
뉴트리바이오텍	-1,316	-1,981	-3,297
파인디지털	-2,980	-58	-3,038
에스엠	-2,319	-653	-2,972
엠지메드	-2,779	-28	-2,807
에스티팜	-796	-1,398	-2,194
인바디	-790	-1,397	-2,18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2	33,759	
LG전자	169	8,891	
한국전력	141	8,737	
코웨이	83	7,476	
엔씨소프트	20	5,038	
LG생활건강	5	4,579	
LG디스플레이	146	4,476	
한미약품	8	4,412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53	4,908	
서울반도체	261	4,323	
AP시스템	71	1,509	
비아트론	43	1,238	
대화제약	26	1,036	
메디투스	2	1,000	
SK머티리얼즈	6	935	
CJ E&M	13	8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46	6,441,485	
현대중공업	9,066	1,146,814	
NAVER	1,538	1,087,371	
LG전자	17,000	892,514	
한미약품	1,496	881,431	
KT&G	6,967	846,441	
SK하이닉스	24,816	835,053	
KB금융	22,831	810,48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258	2,418,820	
카카오	12,888	1,189,526	
바이로메드	2,346	286,238	
로엔	2,952	237,673	
컴투스	1,812	204,380	
메디투스	438	187,370	
파라다이스	11,096	179,754	
이오테크닉스	1,361	146,75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타금융업	4,787	기계	-5,526
미분류	4,128	전기전자	-2,455
서비스업	2,611	종이목재	-1,086
KB금융	5,917	두산인프라코어	-3,456
포스코대우	2,926	쌍용양회	-1,342
중국원양자원	2,424	메리츠증권	-1,095
삼성중공업	1,619	한솔홈데코	-1,030
우리은행	1,353	LG디스플레이	-1,001
삼성엔지니어링	1,324	KEC	-943
KODEX 코스닥 150	1,198	한온시스템	-862
대우건설	1,111	한진중공업	-837
흥아해운	968	한국토지신탁	-771
한화케미칼	838	아시아나항공	-744

KOSDAQ			
순 증		순 감	
인터넷	1,892	화학	-619
오락, 문화	1,277	전문건설	-283
전문기술	996	기계, 장비	-240
카카오	1,858	SKC 솔믹스	-727
포스코 ICT	1,052	티케이케미칼	-695
동진세미켐	723	루멘스	-485
에스엠	505	성호전자	-426
바른전자	421	차이나그레이트	-240
대림제지	390	키이스트	-220
파라다이스	342	상보	-216
이화전기	310	셀트리온	-214
쇼박스	300	이큐스앤자루	-174
씨케이에이치	272	SFA반도체	-1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외국인	8,183.3	562.6	562.6	307.4	52.8	-86.8	37.6	251.7
기관계	-5,399.2	-858.4	-858.4	-296.9	-180.6	-196.2	-109.0	-75.7
(투신)	-3,539.4	-245.4	-245.4	-107.6	-30.3	-21.7	-50.7	-35.1
(연기금)	489.8	-1.6	-1.6	-78.2	-24.8	20.9	46.2	34.3
(은행)	-791.9	-12.2	-12.2	-0.1	-5.7	-0.9	-3.0	-2.6
(보험)	1,321.6	-48.6	-48.6	12.4	11.8	-47.5	5.4	-30.8
개인	-4,344.0	101.5	101.5	-104.9	106.2	253.8	47.2	-200.8
기타	1,559.8	194.3	194.3	94.4	21.7	29.2	24.2	24.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7/29(금)	8/1(월)	8/2(화)	8/3(수)	8/4(목)
KOSPI	2,011.3	1,915.6	1,961.3	2,016.2	2,029.6	2,019.0	1,994.8	2,000.0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684.0	23,266.8	23,680.3	23,364.2	23,000.9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93.2	582.8	413.5	-316.1	-363.3
(회전율)	29.9	34.0	28.8	38.6	36.8	35.7	34.5	33.9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558.4	474.8	463.7	-389.1	-219.2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41.8	3,339.3	3,346.2	3,336.3	3,337.6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201.1	4,209.6	4,232.9	4,240.7	4,265.8
미수금	92.9	117.6	151.0	122.0	114.7	112.9	140.0	144.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28(목)	7/29(금)	8/1(월)	8/2(화)	8/3(수)
전체주식형	69,395	-4,419	-202	4	-16	-103	-165	66
(ex.ETF)		-3,985	-199	7	-17	-106	-67	-27
국내주식형	54,657	-4,347	-191	0	-12	-94	-164	67
(ex.ETF)		-3,916	-187	3	-13	-97	-65	-26
해외주식형	14,738	-72	-12	4	-4	-9	-2	-1
(ex.ETF)		-69	-12	4	-4	-9	-2	-1
주식혼합형	7,873	-119	-24	5	2	-9	-7	-8
채권혼합형	29,949	-930	-59	-26	15	-31	-6	-22
채권형	109,053	19,785	428	-89	257	140	241	46
MMF	127,356	32,327	1,137	2,362	-2,898	-485	1,359	26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1(월)	8/2(화)	8/3(수)	8/4(목)	8/5(목)
한국	7,166	508	508	277	48	-78	34	227
대만	11,124	486	486	399	113	-81	55	-
인도	4,874	229	229	98	37	94	-	-
인도네시아	2,359	471	471	141	223	28	79	-
태국	2,324	20	20	22	2	-33	29	-
남아공	-5,283	-22	-22	86	-79	-	-28	-
필리핀	1,128	69	69	16	-2	54	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회사채 (AA-)	2.11	1.63	1.63	1.65	1.65	1.64
회사채 (BBB-)	8.06	7.71	7.71	7.73	7.73	7.71
국고채 (3년)	1.66	1.21	1.21	1.24	1.23	1.22
국고채 (5년)	1.81	1.22	1.23	1.27	1.26	1.24
국고채 (10년)	2.08	1.36	1.37	1.42	1.41	1.38
미 국채 (10년)	2.27	1.52	1.55	1.54	1.50	-
일 국채 (10년)	0.27	0.13	0.07	0.08	0.07	-
원/달러	1,172.50	1,108.00	1,110.00	1,117.60	1,114.00	1,110.40
원/100엔	972.63	1,080.23	1,098.68	1,101.08	1,102.10	1,098.10
엔/달러	120.55	102.57	101.03	101.50	101.08	101.12
달러/유로	1.09	1.11	1.12	1.11	1.11	1.11
DDR3 1Gb (1333MHz)	1.00	1.09	1.09	1.09	1.09	-
DDR3 2Gb (1333MHz)	1.13	1.05	1.05	1.05	1.05	-
NAND Flash 16Gb (MLC)	1.46	1.58	1.58	1.58	1.58	-
CRB 지수	176.81	178.21	177.31	179.78	181.34	-
LME 지수	2,217.9	2,417.7	2,418.4	2,417.6	2,395.7	-
BDI	478	650	645	641	636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0.06	39.51	40.83	41.93	-
금 (달러/온스)	1,060.00	1,349.65	1,363.75	1,358.90	1,362.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韓> 7월 수출 YoY (-10.2, -4.4%, -2.7%)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52.6, 53.0, 53.2) 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6, 48.8, 48.6)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9, 50.1, 50.0) 유럽> 7월 마켓 제조업 PMI (52.0, 51.9, 51.9) 독일> 7월 마켓 제조업 PMI (53.8, 53.7, 53.7)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8%, 0.8%) 美> 6월 PCE 근원 YoY (1.6, 1.6%, 1.6%) 日> 7월 분원통화 YoY (24.7%, n/a, 25.4%)	유럽> 6월 소매판매 MoM (0.0%, 0.0%, 0.4%) 실적발표> 美 타임워너, 테슬라모터스,	美> 6월 제조업수주 (n/a, -1.9%, -1.0%) 6월 내구재 주문 (n/a, -4.0%, -4.0%)	美> 7월 실업률 (n/a, 4.8%, 4.9%) 7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n/a, 175k, 287k) 독일> 6월 공장수주 MoM (n/a, 0.5%, 0.0%)
8	9	10	11	12
美> 7월 도매 재고 MoM (n/a, 0.2%, 0.1%) 中> 7월 외환보유고(7월) (n/a, \$3200, \$3205) 日> 6월 경상수지 (n/a, 1100, 1809) 7월 PPI YoY (n/a, -4.0%, -4.2%) 실적발표> 韓 한화테크윈, 현대홈쇼핑	美> 7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69k) 中> 7월 CPI YoY (n/a, 1.7%, 1.9%) 실적발표> 美 월트 디즈니 韓 미래에셋생명보험	韓> 7월 실업률 SA (n/a, 3.6%, 3.6%) 美> DOE 미국 원유 재고 (n/a, n/a, 1413k) 中> 7월 M2 통화공급 YoY (n/a, 11.0%, 11.8%) 7월 신규대출 (n/a, 885bil, 1380bil) 日> 3차 산업 지수 MoM (n/a, 0.3%, -0.7%) 실적발표> 韓 이마트, 한국가스공사, 엔씨소프트, 삼성생명, 한화케미칼,	韓> 금융통화위원회 실적발표> 韓 엔씨소프트, 삼성생명, 한화케미칼, GS리테일 카카오	美> 7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5%) 中> 7월 광공업생산 YoY (n/a, 6.2%, 6.2%) 7월 소매판매 YoY (n/a, 10.5%, 10.6%) 유럽> 2분기 GDP SA QoQ (n/a, 0.3%, 0.3%) 6월 산업생산 MoM (n/a, 0.6%, -1.2%) 독일> 2분기 GDP SA QoQ (n/a, 0.3%, 0.7%)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4%, 0.4%) 실적발표> 韓 한화생명, 강원랜드, KB금융지주, NHN엔터테인먼트
15	16	17	18	19
美> 제조업지수(뉴욕주) (n/a, 2.00, 0.55) 日> GDP SA 전기대비 (n/a, 0.2%, 0.5%) 광공업생산 MoM (n/a, n/a, 1.9%)	美> CPI MoM (n/a, 0.1%, 0.2%) 광공업생산 MoM (n/a, 0.2%, 0.6%) 주택착공건수 (n/a, 1180k, 1189k) 유럽> ZEW서베이예상 (n/a, n/a, -14.7)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日> 3차 산업 지수 MoM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유럽> CPI MoM (n/a, n/a, 0.2%) CPI YoY (n/a, n/a, 0.2%) 日> 무역수지 (n/a, n/a, ¥692.8)	日> 전체 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1.0%)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